

셀라 SELAH

설교자료

셀라 멈추고 생각하라... “선하심”

첫째 주: 시편 27:12-14; 로마서 15:13-15

저와 함께 셀라의 삶을 연습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표현은 시편에서 총 71회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익숙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 의미와 시편에서의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마치 독자이든 청중이든 “멈춰서 성찰하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속도와 그 삶의 무대인 세상을 생각해 볼 때, 여러모로 시의적절한 표현이란 생각이 듭니다.

자, 저와 함께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잠시 멈춤).

무엇이 떠오르나요? (잠시 멈춤)

어떤 이미지가 보이시나요? (잠시 멈춤)

누구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잠시 멈춤)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잠시 멈춤)

선하심이란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치 “다섯”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는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요.

1964년에 미대법원은 “외설”이라는 표현에 대한 일반적 정의를 필요로 했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단어를 정의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면 압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가 “선하심”이라는 표현을 다루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의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보면 압니다.”¹

그 모호한 표현이 이렇게 우리에게 현실적인 개념으로 다가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볼 때 말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어떤 분에게 다가가서는, “저는 선함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으실 겁니다. 제 행실에서 어떤 “선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으실 겁니다.

온라인 성경을 통해 선하심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 단어가 언급된 여러 구절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발견한 한 가지는 구약 전반에 걸쳐서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관해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이 정의하는 선하심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히브리 문화권 내에서는 선하심은 인간이 열망할 수는 있어도 달성할 수는 없는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27편 13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초점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고 또 확실히 믿는 바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들에게서 반영되어 보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진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 가운데 그분의 선하심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¹Movie Day at the Supreme Court or “I Know It When I See It”: A History of the Definition of Obscenity

<https://corporate.findlaw.com/litigation-disputes/movie-day-at-the-supreme-court-or-i-know-it-when-i-see-it-a.html>

우리의 유대인 자매 형제들의 신앙전통에는 12세기에 활동했던 모세 마이모니데스라는 다작의 유대 학자가 쓴 자선(히브리어 체다카 *צדקה*)에 관한 흥미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는 자선(나눔)에 관한 여덟 단계를 정의했는데, 마이모니데스의 사다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²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의 단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8. **마지못해 나누는 것.**
7. **마땅히 해야 할 것보다는 적게 나누지만 기쁘게 하는 것.**
6. **요청을 받는 즉시 가난한 이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는 것**
5. **요청받지 않고도 가난한 이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는 것.**
4. **받는 이는 주는 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주는 이는 받는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누는 것.**
3. **주는 이는 받는 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만, 받는 이는 주는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누는 것.**
2. **도움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움을 주는 것. 책임감 있는 이들에 의해 관리되는 공동 기금이 이 범주에 해당함.**
1. **존중하는 마음으로 거액을 기부하거나, 적합한 대출을 연장해 주거나, 일자리 찾는 것을 돕거나, 사업에서 자리 잡는 일을 돕는 등의 방식을 통해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기 이전에 그들 스스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래서 그들이 다른 이들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일. 이것은 최고의 자선 행위이다.**

어떤 이들은 몇몇 사다리 단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순서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마이모니데스의 사다리를 통해 분명히 깨달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높이 위치한 두 단계는 분명 우리 연합감리교인들이 매주 실천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주 우리 헌금의 일부가 지방회와 연회를 통해 협력적 연대사역을 후원하고, 또 연합감리교회 교단을 통해 전 지구적 선교, 구제, 인권보장 사역 등을 후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만나보지 못할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학교의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그들의 삶과, 마을 및 국가 공동체를 발전시킬 기술을 배우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아가 문턱에 오기 전에 지속가능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과, 그들과 이웃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농업 프로그램들을 후원함으로써 절대로 만나지 못할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료 선교와 인적 물적 지원을 통해 단지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살충 처리된 모기장을 보급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교육하여 어떻게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선하심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잠시 멈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서 그분의 선하심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이렇게 썼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롬 15:13-14).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가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명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시 연결하고, 지금 우리 세계가 겪고 있는 혼란 속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일깨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서 그러한 선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하심을 어

² <https://www.myjewishlearning.com/article/maimonides-ladder-of-tzedakah/>

셀라

설교자료

땀겨 정의할지 궁금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하려고 하지 않겠지만, 보면 압니다.” ■

본 설교를 4주간 나눌 수 있는 설교 시리즈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셀라: 멈추고 생각하라... “은혜”

둘째 주: 시편 45:1-3

요한복음 1:14-18

사도행전 15:10-12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은혜”라는 단어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는 이 단어를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합니다. 영어에서 “graceful”이라는 단어는 “우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복잡한,” “섬세한”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Gracious”라는 단어는 “은혜롭다”로 보통 번역되고, 베풀기를 잘하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친절한 사람을 두고 쓰입니다. 시편 45편에 나오는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는 구절은 맥락상 “깊이 진실한 말”을 가리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10-12에서 말씀하는 은혜는 또 다릅니다. 여기서 은혜는 율법의 조문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주시는 길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한편 요한복음의 첫째 장에서 성서 기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본성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사랑의 동의어로 쓰인 것처럼 보입니다.

셀라: 멈추고 생각하라... “감사”

셋째 주: 시편 147:6-8

누가복음 17:11-19

잠시 멈추고 “감사”라는 말을 생각하십시오. 기독교 청지기 직분의 기본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희생, 우리가 쌓고, 관리하고, 기부하는 모든 재산이나 자산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응답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착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베푸는 이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또 많이 드리는 사람들에게 마법처럼 더 많은 돈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지나치게 단순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흔들림 없는 감사의 토대 위에 청지기적 사고방식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이 기차는 탈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셀라: 멈추고 생각하라... “나눔”

넷째 주: 시편 37:18-24

고린도후서 8:1-14

바라기는 본 시리즈를 통해서 모든 설교자가 멈춰 서서 “나눔”을 생각하는 일이 왜 이 여정의 마지막이 되어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야 한다는 공통된 이해는 은혜를 향한 새로운 이해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는 진정한 청지기적 사고방식의 토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나눔”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이모니데스의 사다리를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의 일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의 나눔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다소 어려운 질문과 씨름하고자 할 수도 있겠습니다.

1) 나눔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전락할 때는 언제인가?

2) 어떻게 교회는 자신의 물질적 필요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제자로서 가진 나눔의 필요성을 등한시하게 되는가?

3) 기부가 세상의 필요에 대한 해결책이 아닌 문제의 일부가 되는 것은 언제인가?